

이낙연 지사, 도의회와 연정 제안 거부

전남도의회 도정질의

“전남은 경기도와 다르다”

의회 통과 정부특보 신설 검토

도교육청 청렴도 3년 연속 하락

도정질문 이틀째인 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남도도와 전남도의회 연정(연합정치) 문제를 비롯한 전남도교육청 청렴도 문제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낙연 지사 연정 거부=이낙연 전남 지사가 전남도의회와 연정 제안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정질문에서 더민주 문

행주(화순 1) 의원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연정 사례를 들면서 전남도의회와 연정을 제안하자, “경기도의 경우 특유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전남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제가 됐고 국회의원 수는 국민의당이 더 많다”며 “이 지사가 기존의 법률과 제도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로 회피하지 말고 제2정무부지사를 신설하거나 연정을 할 의사가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전남은 경기도 처럼 양당제가 철폐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다음 선거가 닥쳐서도 연정이 계속될까, 그건 아니다”며 “제도적으로 제2정무부지사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지만 의회와의 통로로 정부특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청렴도 3년 연속 하락=전

남도교육청의 청렴도가 해마다 하락하면서 부패 취약부문 개선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은 6일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청렴도는 ▲2013년 7.30점(7위) ▲2014년 7.33점(9위) ▲지난해 7.30점(10위) 등이다. 청렴도 주기적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민원인에게 불친절 및 권위적 자세 등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정일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청렴도 향상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 취약부문 개선을 통한 대의 신뢰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배치 촉구=해마다 급증하는 정신질환자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정신보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권애영 의원은 6일 도정질문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10개 광역시도에만 정신보건부서가 설치돼 있다”면서 “개입중독·알코올중독 등 많은 사건·사고들이 정신건강문제에서 기인하는데도, 전남도엔 정신보건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전남도도 조속히 정신보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용수 실장·노성경 특보

윤장현 광주시장, 사표 수리

윤장현 광주시장은 6일 자신의 인척 김모 전 정책자문관에 대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정무직 가운데 박용수 비서실장과 노성경 정부특보에 대한 사의를 수용했다.

장성수 광주시 대변인은 “검찰수사와 관련된 문책성 인사가 아님을 거듭 밝힌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김재철 참여혁신단장과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정무직이라기 보다는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른 ‘광주형 일자리’와 참여형 혁신정책을 이끄는 정책라인이라는 점에서 사의 수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후속 인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봉사도 맞들면 즐겁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회원과 봉사원들이 6일 광주시 서구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봉사원 한마음대회'에서 단체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세버스 블랙박스 장착 조례

광주시의회 다음 회기로 연기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등하굣길과 일부 기업체 출퇴근 전세버스의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 장착 비용 지원 조례안 제정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보류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김동찬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상임위 일부 의원들이 조례안 개정에 앞서 전세버스 블랙박스 장착 실태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광주시당 ‘임대아파트 특위’ 출범...입주민 보호 나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형석)은 6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영구임대아파트특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아파트특위는 전진숙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맡아 관련 조례 이행상황 점검, 실태조사,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위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은 내년 중 추경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중앙당과 함께 국회 차원의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당은 올 8월 말부터 한 달간 영구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운영했다.

광주시당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마련이라는 주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역주민과 공간·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슬럼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간담회를 거쳐 시장 차원의 정책특별위원회로 확대했다.

전진숙 위원장은 “임대아파트 입주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광주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시·구청과 종합사회복지관, 입주민, 유관기관, 협력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원탁회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최고등급 ‘0’

기관장 평가도 최우수 없어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 14곳의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므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여성플라자, 환경산업진흥원 4곳이 ‘나’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는 6일 “지난 4월부터 실시한 2016년도(2015년 실적)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CEO) 성과계약 평가로 구분해 이뤄졌다.

경영실적평가 결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문화관광재단, 녹색에너지연구원, 청소년미래재단, 복지재단, 생활산업진흥원이 ‘다’등급을,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이 ‘라’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가등급을 받았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나등급으로 하락했다.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에서도 ‘최우수(95점 이상)’는 없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우수(90점 이상)’ 등급을 받았다. 전남테크노파크, 환경산업진흥원, 여성플라자, 생활산업진흥원, 청소년미래재단, 복지재단, 녹색에너지연구원, 강진의료원은 ‘보통(75점 이상)’ 등급, 순천의료원이 ‘미흡(60점 이상)’ 등급에 머물렀다.

기관장들은 이번 평가에 의해 연봉이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된다.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경영진단 및 경영혁신과제의 수립·실천’ 항목을 신설해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청렴도 향상 및 비위 방지 방안에 대한 감점제를 확대했다.

청렴도 조사를 별도로 실시해 기관장 성과계약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전남도는 기관별 경영평가 결과 보고 서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연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0월 24일~11월 6일 ‘가을 여행주간’

나로우주센터·무등산 정상 개방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국내 여행수요 창출을 위한 ‘2016 가을 여행주간’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여행주간에는 대규모 할인행사와 함께 평소 개방하지 않던 공간을 개방한다. 전국 주요 관광지, 관광시설, 숙박, 음식점 등 1만3583개 업소가 관광비용 부담을 덜어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도 랫츠리조트, 무주태권도원이 무료 개방되며 4대 고궁, 종묘, 국립생태원, 산음국립자연휴양림은 입장료를 50% 할인한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등 유원지도 입장료를 최대 40%를 할인하고 롯데렌터카는 전국 지점에서 최대 80% 할인을 제공한다.

여행주간에는 전국 26개 지역 40여 곳의 미개방 관광지가 일반에 개방되는데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서는 유교 관련 기록 문화재 중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유교목판을 공개한다. 나로호가 발사됐던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현장도 사전 신청자에게 공개되며, 3·1만세운동 태극기가 비밀리에 제작됐던 대구 계성중학교 아담스관도 여행주간에만 개방된다.

지리산 정상, 무등산 정상, 금강송 유전자원보호구역, 인천 교통 민통선 지역, 강진화재단지 등도 여행주간에 개방된다.

각 지자체는 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에서는 남도 강길, 바닷길, 철길 여행을 주제로 영산강 생태탐방과 전통한옥체험, 강진만 이야기꾼과 걷기 대회, 갈대숲 음악여행 등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주민등록상 ‘1인 세대’ 34.8%...역대 최다

주민등록 통계상 세대(世帯)원이 1명인 ‘1인 세대’가 739만에 이르러 전체 세대의 34.8%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자치부가 분석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체 2121만 4428 세대 가운데 1인 세대가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인 세대 21.3%, 4인 세대 18.7%, 3인 세대 18.5%, 5인 세대 5.1%, 6인 세대 1.2%, 7인 이상 세대 0.4% 등 순이었다.

1인 세대는 주민등록 인구를 전산적으로 처리한 2008년부터 31.6%로 가장 비중이 큰 세대 유형이었으며 2010년 33.3%, 2014년 34.0%, 올해 9월 34.8%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합뉴스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천사거리 | 광주전남로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